

에너지 산업

내년 유가 하락 가능성 높다 [산업연구원]

고유가로 연간 수출치질 최대 68억달러

내년에는 세계경제의 성장세 둔화와 원유수급 안정으로 올해보다 유가가 다소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왔다. 오상봉 산업연구원 원장은 22일 리즈칼튼호텔에서 열린 서울 이코노미스트클럽 초청강연에서 “올해 중동산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34.39달러, 내년에는 33.13달러 정도가 될 가능성이 70%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오 원장은 “이에반해 중동 정세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원유수급 차질과 시장불안감이 확산될 경우 유가가 올해는 35달러, 내년에는 40.38달러로 상승할 가능성도 30%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유가상승으로 인한 수출둔화는 원가상승에 따른 수출가격 전가로 인한 경우와 선진국 경기악화에 따른 경우 2가지가 나뉠 수 있는데 전체적인 둔화율을 올 하반기 2.6~3.3%, 내년 상반기는 2.2~3.4% 정도 될 것으로 전망됐다.

고유가에 따른 수출둔화액은 올 하반기는 25억1천만~32억8천만달러, 내년 상반기는 22억8천만~35억1천만달러로 연간으로는 최대 67억9천만달러 가량 차질을 빚을 것으로 나타났다.

오 원장은 “주요 에너지원의 해외 수입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산업부문의 에너지 정책기조는 신성장산업 육성, 주력기간산업의 에너지효율 증대 등을 통해 경제 전체의 에너지 집약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자동차 부문의 경우 화학연료시대에서 전기에너지 시대로 전환되는 것에 맞춰 관련기술개발과 하부

구조 구축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 원장은 또 조선은 연료 저소비형 선형과 엔진개발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이, 반도체는 환경친화성 기술을 위한 산학연 연계 개발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가스공사 발전사 LNG도입 함께 연다

이희범 장관 업무보고서 밝혀, 구조 개편 연내 마무리 전망

가스공사가 현재 추진중인 장기 LNG 도입계약과 한전의 발전4사의 자가소비용 LNG 직도입 계획이 병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이희범 산자부 장관이 지난 21일 국회 산자위 국감 업무보고에서 밝힌 내용으로 현재 추진중인 가스공사의 우선 승계조건부 장기계약과 발전4사의 자가소비용 LNG 직도입 계획과 병행 검토해 국가 전체 LNG 수급상 도입 가능물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산자부는 산자위 요구자료에서 LNG 직도입은 신고사항으로서 일정요건을 갖추고 전체적인 가스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추진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발전사도 이러한 점을 충족하는 경우 LNG 직도입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산자부는 현재 167만톤 규모(30기, 저장비율 8%)의 저장시설을 올해말까지 191만톤 규모(33기, 저장비율 9%)로 증설하고 2015년까지 337만톤 규모(55기, 저장비율 12%)로 증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의 확충계획을 검토해 2~3년 조기완공하

는 방안과 목표 저장비율을 12%에서 13%로 높이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가스산업구조개편에 대해서는 한국가스공사의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진입규제 철폐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경쟁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 장관은 “과거 도입도매부분을 세 개로 쪼개기로 한 결정은 타당성이 없어 신규경쟁도입 체제로 바꾼 상황이다”며 “이는 가스공사와도 합의가 됐고 연내 완전 결론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혀 그동안 지지부진한 가스산업구조개편 문제가 연말까지 매듭지어 질 것으로 전망된다.

美 에너지지원 장악·유일 초강대국 유지

美 외교정책 목표,美 정보분석 사이트 주장

미국의 외교정책은 에너지 자원이 있는 모든 지역을 장악하고, 미국의 헤게모니를 위협하는 다른 수퍼파워의 등장을 저지한다는 두 가지 목적 아래 이뤄진다고 미국의 정보분석 전문 인터넷 사이트 ‘액시스 오브 로직(Axis of Logic)’이 20일 주장했다. 다음은 칼럼의 요지.

부시 행정부의 ‘새로운 미국의 세계 프로젝트’(PNAC)에 따르면, 광대한 영토와 자원을 보유한 러시아, 급속한 성장 궤도에 오른 중국, 회원국 확대로 인구·경제력 규모가 급증한 유럽연합(EU) 등이 단독 또는 연합해 미국을 위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한다.

군사력은 오랜 기간 세계 최고 지위를 유지할 것이 틀림없다. 하지만 미국

은 원유의 상당 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어 공급이 중단·급감하거나, 원유 거래 통화가 유로화(貨)로 바뀔 경우 경제에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 때문에 미국은 세계의 많은 곳을 ‘전략적 주요 지역’으로 구분하고, 중앙정보국(CIA)이나 미군이 개입하는 모험에 휘말리고 있다.

또 카스피해 인근 카프카스 지역의 그루지아와 아제르바이잔에 상당한 영향력을 확보한 미국은 러시아에 대한 체첸의 독립투쟁을 방치함으로써 러시아의 영향력 감소와 미국의 이익 증진을 함께 도모하고 있다.

북·석탄 지하가스회사 설립 추진

북한은 석탄을 땅속에서 연소시켜 가스를 뽑아내 이용하는 ‘석탄 지하가스화’를 적극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총련) 기관지 조선신보 인터넷판은 북한 과학원 석탄과학분원에서 탄광의 경영 합리화에 대한 연구를 집중하고 있다며 “지금 과학자들 앞에 제기된 과업의 하나가 지하가스화 사업의 기본 틀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조선신보는 “지하가스화란 갱도를 뚫지 않고 땅 속에 묻힌 석탄을 태워 연료로 쓰이는 가스를 생산하는 것”이라면 “이미 평안남도 안주에서 그런 방식으로 가스 생산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석탄과학분원 함상호(49) 과학지도처장 일행이 곧 러시아에 출장을 갈 예정이라며 출장 목적도 “갱도 유지문제와 지하가스화 문제를 새로운 조건에 맞게 해결하기 위한 사전작업”이라고 말했다.

함 처장 일행은 러시아 원동국립기술종합대학의 학자, 연구사들과 공동으

www.hicontrol.co.kr

흔들리지 않는 명성 - 하이컨트롤스

최고를 찾는 것은 모두가 한결 같습니다.






사한전자



Honeywell



Kromschroder



DUNGS



하이컨트롤스주식회사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250번지 (주) 하이컨트롤스 (대동 44(23)) TEL / (02) 2612-6346(FX) FAX / (02) 2612-6348

부산시 중구 중앙동 15번지 하이컨트롤스 (04) 2612-0544(FX) TEL / (030) 492-0544(FX) FAX / (030) 492-0840

